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감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름

(토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름
(2)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며,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됨

성경: 엡 4:13-16, 20-24

I.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 엡 4:15-16, 24.

- A.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엡 4:14),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기까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 B.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서, 곧 크고 작은 각각의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 엡 4:15.
- C. 우리에게는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다.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
- D.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것이다. 이것이 우주적인 한 새사람이다 — 엡 4:24.
- E.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가 머리 안으로 자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가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는 것이, 몸의 지체들이 머리 아래서 자라는 것이어야 함을 가리킨다.
- F.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우주적인 한 새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것이다 — 엡 4:24.
- G.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성장이 하나님께서 증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더해지시는 것임을 의미한다 — 골 2:19.
- H. 에베소서 4장은 새사람이 생명의 성장을 통해 온전하게 됨에 대해 말한다.
 - 1.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유기적인 방면에서 새사람의 창조를 본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우리는 새사람이 기능과 관련해서 온전하게 됨을 본다.
 - 2. 유기적인 방면에서 온전한 새사람은 합당한 방식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생명의 성장을 통해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다 — 엡 4:13, 15, 24.
 - a. 합당한 양육을 받음으로 더욱더 자랄수록, 새사람은 더욱더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b.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24절에서 새사람을 입는 것과 동일하다.
 - 3. 단체적인 새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그 결과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넣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럴 때 유기적인 방면에서 온전한 새사람은 기능적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 엡 3:16-17상, 4:13, 24.

II.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 엡 4:20-21.

- A. 한 새사람의 생활은 예수님의 생활과 정확히 똑같아야 한다 — 엡 4:20-21.
1.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이 오늘날 새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다 — 마 11:28-30, 요 6:57, 4:34, 5:17, 19, 30, 6:38, 17:4.
 2. 우리의 생활 기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살아 내셨던 실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엡 4:20-21.
 - a.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생활을 사셨다.
 - b.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셨다 — 엡 4:24.
 - c. 예수님의 인간 생활은 실재, 곧 하나님 자신에 따른 것으로서 의와 거룩함이 충만하였다.
 3.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실재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 — 엡 4:20, 요이 1, 요 4:23-24.
 4. 단체적인 한 사람인 새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실재의 생활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5.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을 따라 산다면(엡 4:23), 우리는 단체적인 새사람의 생활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와 부합하는 생활을 매일 살게 될 것이다.
- B.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새사람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공동체 생활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의 공동체 생활을 입어야 한다 — 엡 4:22, 24.
1.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벗어 버리는 것이다 — 엡 4:22.
 2. 한 새사람인 교회생활을 입는 것은 신성한 영과 거듭난 사람의 영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단체적인 한 실체를 입는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실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과 연합 되셨다 — 골 3:10-11, 고전 15:45하, 6:17.
 3. 교회생활은 단체적인 새사람의 매일의 행함, 곧 본성과 방식에서 절대적으로 새로운 행함이다 — 엡 4:17-32.
 4. 한 새사람은 하나님 자신에 따라 존재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성한 생활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생활은 단체적인 생활이며,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니다 — 엡 4:24.

III.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 — 엡 4:23.

- A. 에베소서 4장 23절에 따르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열쇠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1.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거듭난 영과 연합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장되실 때, 이 연합된 영은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된다. 바로 이러한 연합된 영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된다.
 2. 새롭게 하시는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되심으로 연합된 한 영이 되시어,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장되시므로써 새사람의 한 지체인 우리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 — 고전 6:17, 엡 4:22, 24.
 3. 우리 모두가 기꺼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고자 할 때에만,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 — 엡 1:9, 3:11, 4:23.

- B.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한 새사람이 완전히 출현하고 실지로 실행되기 위한 것이다 — 엡 4:22-24, 골 3:10-11.
1.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의 초점은 한 새사람이다 — 엡 4:23-24.
 2. 우리의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사고방식은 평생 동안 형성된 것이지만, 한 새사람의 존재를 위해서 이 사고방식은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 — 골 3:10-11.
 - a. 우리의 천연적이고 민족적인 사고방식은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이고, 인종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새사람의 존재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 b. 한 새사람이 완전히 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적과 문화에 따라 형성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3. 새사람이 실지적으로 실현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 롬 12:2, 엡 4:23-24, 골 3:10-11.
 - a.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실지로, 날마다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새사람을 얻으실 길이 없다.
 - b. 우리는 기도할 때 한 새사람의 실지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기에 갈망해야 하며, 따라서 한 새사람을 위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 롬 12:2.
 - c. 우리가 그 영을 마실 때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이며, 이렇게 새롭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한 새사람이 될 것이다 — 고전 12:13, 엡 4:23-24.
 - d.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때 한 새사람은 실지적인 방식으로 출현하게 될 것이다 — 엡 4:24.

사역의 밑줄에서 발췌

성장함

머리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음으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란다(엡 4:15).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14절)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이는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를 때까지(13절), 모든 일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15절에서 ‘머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자라는 것은, 몸의 지체들이 머리 아래서 자라는 것 이어야 함을 가리킨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는 사실은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이 거짓 말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포함함을 증명한다. 당신은 단순히 거짓말 대신 참된 것을 말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다고 믿는가?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

머리 안으로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관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관심함으로써, 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다룸으로써 성장한다. 우리는 윤리적인 처세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정직이나 성실에 의해서 자라지 않는다.

이 구절에서 성장의 문제는 특별히 모든 일에서 머리인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과 관련된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전부 성장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리저리 요동하거나 떠밀려 다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역시 자라야 한다. 그러나 자신 안으로나 그리스도와는 떨어진 다른 어떤 것 안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바울은 우리가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는 우리의 성장이 반드시 몸 안에 있어야 함을 가리킨다. 머리 안으로 자라려면 반드시 몸 안에 있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볼 때 영적으로 자라고 있지만 그들의 그럴듯한 성장은 몸 안에 있지 않다. 나는 이런 종류의 성장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더욱더 분열적으로 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랄수록 더 비판적이 되는 것 같다. 그들이 별로 자라지 않았을 때는 교회생활 안에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들은 문젯거리가 된다. 이는 그들의 성장이 머리 안으로의 성장이 아니라는 표시이다. 어떤 사람의 성장이 머리 안으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몸 안에서의 성장이 아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구주나 주인이나 주님 안으로 자라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그는 우리가 머리 안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오직 몸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몸 안에 남아 있지 않다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성장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머리 안으로의 성장이 아닐 것이다.

모든 일에서

15절에서 바울은 반드시 모든 일에서 머리 안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이 어떤 측면에서는 머리 안으로 자랐지만, 다른 측면들에서는 아마 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내 체험에 따르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말하는 것이다. 시편 141편 3절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한다. 말하는 것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당신이 젊은 늙은이든, 형제든 자매든, 말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성장하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간다면, 아직도 머리 안으로 자라지 못한 작은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가 주님께 새롭게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5장, 422-424쪽)*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대해 말하고, 21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이라고 말한다. 다비(J. N. Darby)는 4장 21절에 대한 각주에서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 앞에 강조의 뜻을 가진 정관사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 다음 다비는 계속해서 이 정관사가 “예수”를 직접적으로 두드러지게 한다.”라고 말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생활, 곧 진리와 실재로 충만한 생활의 참된 상황이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삶을 사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이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사셨다.

24절에서 바울은 새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이 실재는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실재이다. 우리의 생활 표준은 율법이나 사회의 표준

들을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살아 내신 실재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새사람의 생활은 예수님의 생활과 정확하게 같은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사셨던 방식이 곧 오늘날 새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다.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라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실재에 따라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께 물건을 사러 가실 것인지 여쭙어 보아야 한다. 한 새사람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의 실재의 삶이어야 한다. 만일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하고, 신성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놀라운 공동생활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사람의 단체적인 삶이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93장, 845-846쪽)*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영

새사람을 입는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처와 새사람이 있는 우리의 영(그 영과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온 존재를 지배하고 지휘한다. 그러므로 영이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된다는 것은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휘하고 조정하고 다스리고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의 생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되어야 한다. 만일 생각이 우리의 영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고 조정하고 지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의 영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지휘함을 의미한다.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휘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통치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온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처와 새사람이 있는 우리의 영의 통제 아래 있게 된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이다. 이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사람을 입는다.

우리가 얼마나 새사람을 입었는가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온 존재를 얼마나 지배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지휘할 때 의견이나 규례들이 설 자리가 없다. 우리의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의 영이 지배하고 조종하며 통제하고 지휘하기 때문이다.

점진적인 과정

새사람을 입는 것은 단번에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며 일생의 과제이다. ... 새사람은 이미 신성한 본질이신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새사람은 우리의 영 안으로 넣어졌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온 존재를 영에 의해 통제받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새롭게 되게 함으로써, 이 새사람을 입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존재의 일부분이 새롭게 될 때마다 우리는 새사람을 조금 더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수록 우리는 새사람을 더 많이 입게 된다. 결국에는 새사람을 입는 이 과정이 완성될 것이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4장, 239-240쪽)*

한 새사람이 존재하도록 생각이 새로워짐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 두 방면을 갖고 있다. 그것은 한 새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한

새사람에 관한 첫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새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성경 전체에서 이 한 새사람이 창조되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 주는 유일한 구절이다.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새사람은 이천 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백성—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창조되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이 한 새사람의 거의 모든 방면을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한 중점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중점은 한 새사람의 존재이다. 한 새사람의 창조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지만, 오순절 이전에는 이 한 새사람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한 새사람의 존재는 오순절에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완성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새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일 뿐이다. 심지어 오늘날도 새사람의 존재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성령 안에서 침례 받음

한 새사람이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첫 단계는 성령 안에서 침례 받는 것이다. 오순절날(행 2:1-4)과 고넬료의 집에서(행 10:34-48)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다고 말한다. 이 구절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노예와 자유인을 언급한다. 이들은 서로 민족이 다르며 사회적인 계급도 다르다. 서로 다른 인종과 서로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성령 안으로 넣어졌다.

한 영을 마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또한 우리로 모두 한 영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한다. 그 영 안에서 침례 받는 것은 단번에 성취되었지만, 매일 한 영을 마시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한 영을 매일 매시간 마셔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첫 단계를 성취하신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마심으로써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해야 한다.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써 새사람을 입음

에베소서 2장 15절은 새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에베소서 4장 22절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고 말한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새사람이 단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원칙으로 옛사람도 단체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가르침 받고, 교정받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지시받음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써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4:23).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을 때, 단지 옛사람을 벗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4:24)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한 새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당신에게는 새사람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조된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사람을 입는 방법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해 그 영을 마심으로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됨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되라고 말한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몸 안에서 충만하

게 되는 것이지만, 영(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엡 3:19)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1:23). 주님은 우리 영에서부터 먼저는 생각 안으로, 다음에는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영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산된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의 연합된 영 안에서이다. 그 영을 마시는 것은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여는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시다. 우리가 그 영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 자신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적셔 주셔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신다.

한 새사람을 위해 생각이 새롭게 됨

젊은 믿는 이였을 때 나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다만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생각을 채우시고 소유하시고 점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들을 철저히 자백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행실도 바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의 초점은 한 새사람에 맞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은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한다.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새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노예와 자유인을 위한 아무런 여지가 없다. 새롭게 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행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인 규례들이 끝나고 타고난 사람도 끝나는 것이다. 새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타고난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거나 여지도 없다. 새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만 있다. ... 새사람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새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새사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있을 수 없다.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있을 수 없다. 새사람 안에는 백인이나 흑인도 있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한 새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새로워져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사람의 창조와 새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있다. 창조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지만, 새롭게 되는 것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 새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새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사람은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는 많은 나라에 가 보았고, 특이한 많은 규례들과 독특한 많은 생활 방식들을 보았다.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새로워지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다. ... 이러한 서로 다른 규례들은 대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우리의 생각이 더 새로워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한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옷을 입는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세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더 나아가 분열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이다.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4장 23절은 새롭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구절 모두 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은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몸을 얻으시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몸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서로 다른 규례들과 관련된다.

우리의 타고난 생각은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 영으로 채워지고 적셔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 영께서 우리 사고방식에 속속들이 스며드셔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나 윤리적인 행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 새사람을 위해서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께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확산되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천연적이고,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관념을 붙들고 있다. 그들은 그 영께서 자신의 생각을 점유하시도록 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생각을 완전히 당신께 열어 드리기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히 채워 주소서. 저의 내적 존재 전체에 스며드시고, 내적 존재 전체를 흠뻑 적셔 주시며 소유하소서.” 만약 우리가 주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스며드릴 수 있는 길을 얻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 영께서 우리 생각 속에 스며드릴 때, 규례들은 끝나게 된다. ... 우리는 한 새사람만을 관심할 것이다.

한 새사람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 존재가 교정받고 가르침 받는 것으로는 한 새사람이 실현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스며드릴 때에만 한 새사람의 실현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며, 그분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볼 것이며, 그분께서 상황을 고려하시는 것처럼 고려할 것이다. 한 새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때이다. 그럴 때 더 이상 민족적인 차이도, 사회적인 계급의 차이도, 종교적인 차이도 없을 것이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요,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에 대한 최선의 이상이라고 믿는다. 주님은 한 새사람을 얻으시려고 계속 나아가고 계신다.

새사람을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주님의 움직임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건축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틀림없이 성취된다. 새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공허한 말이 될 수 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새사람이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새사람이 존재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여기에 건축된 교회가 있다. 현재의 분열된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은 한 새사람을 얻으실 것이다. 이 현 시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 새사람을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들과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연합된 영으로 흠뻑 적셔지고, 침투되고, 소유되고, 점유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의 관념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어, 더 이상 어떤 규례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새사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이다. *(한 새사람, 74-85쪽)*